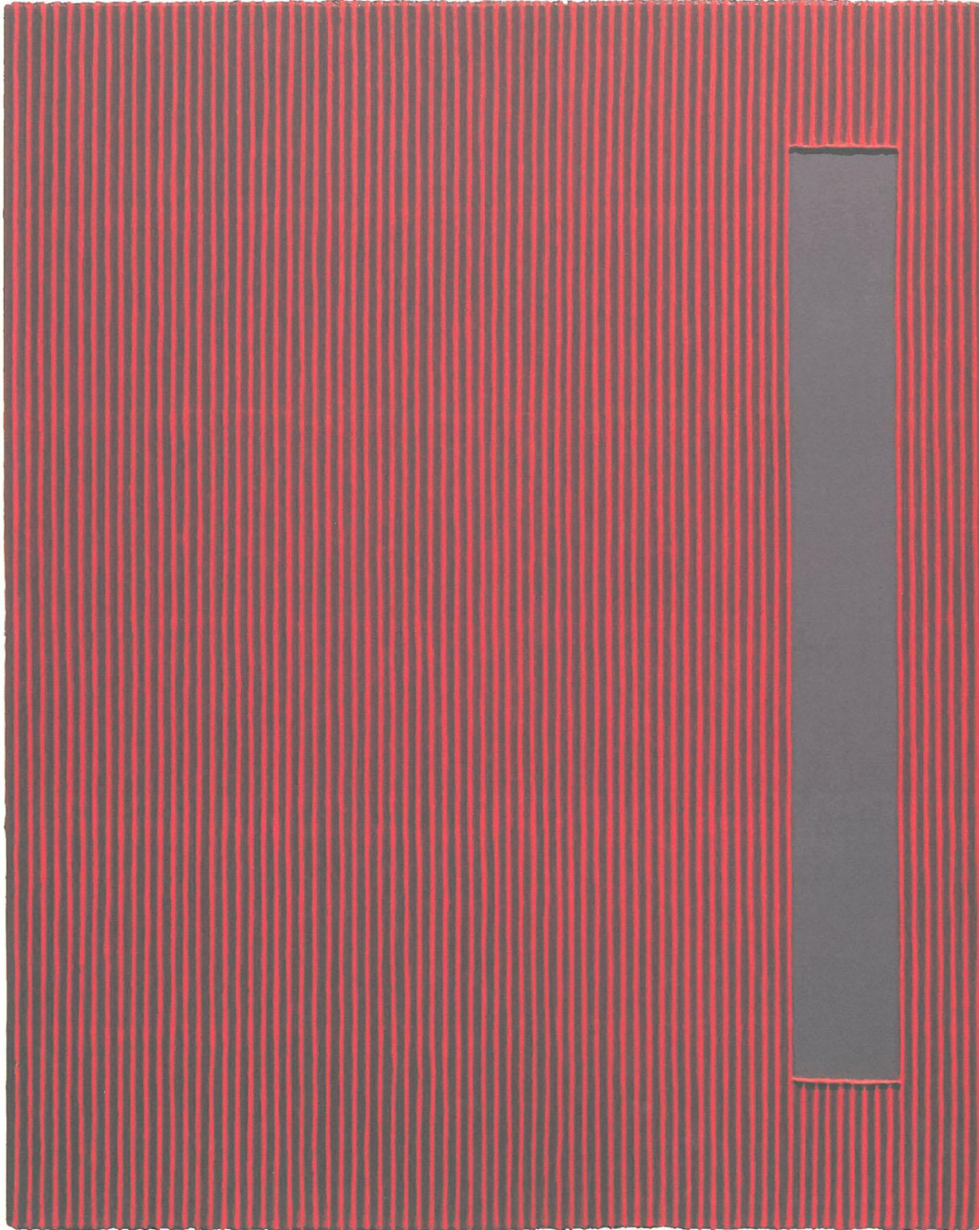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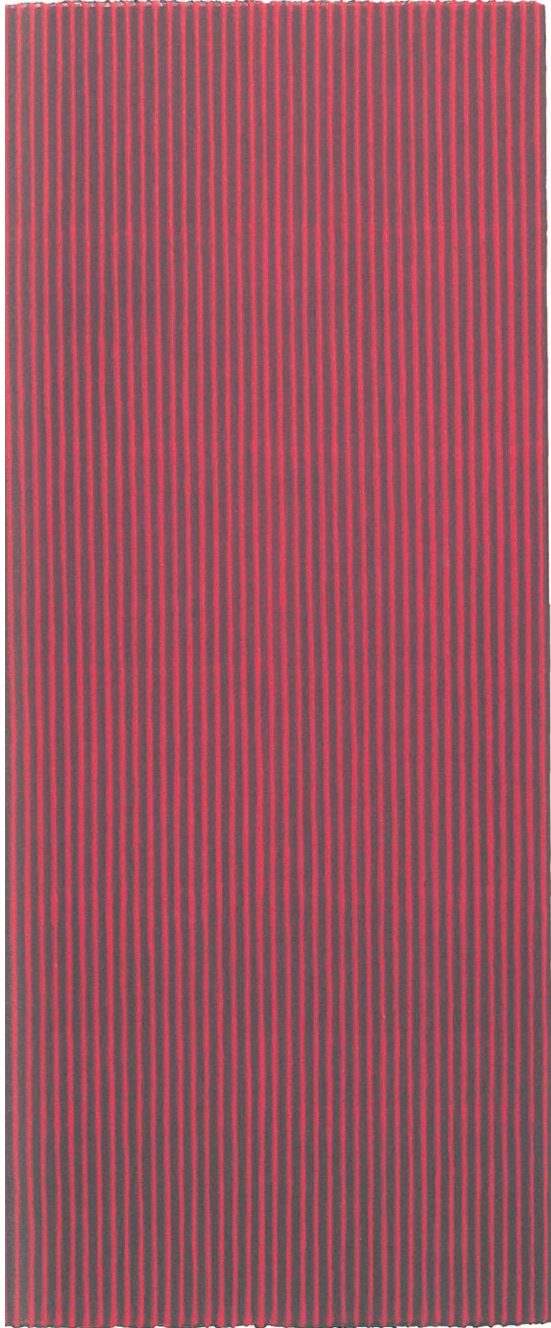


박서보, 느티나무 그늘이 되고픈 화가

FALL-WINTER, 2016 | 김슬하



Ecriture No.150114 (2015년 작)



## DANSAEK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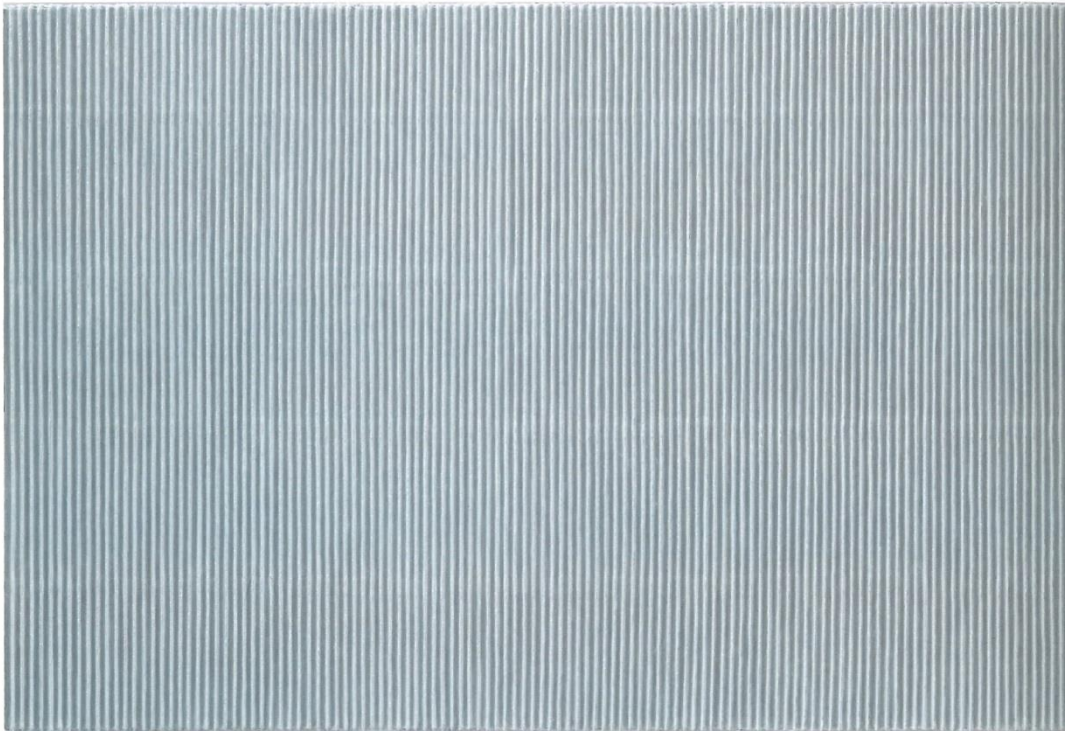
박서보,  
느티나무 그늘이 되고픈 화가.

작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건물인 팔라초 콘타리니-폴리낙에서 '단색화展'이 개최 되었다. 7명의 대표적인 단색화 화가들이 대대적으로 소개 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시회 제목에 이전 더 이상 단색화의 영어 번역인 'Korean Monochrome Painting'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Dansaekhwa'라는 우리말 그대로 표기를 하여 독자적인 미학적 영역을 확보 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 미술세계에서 베니스 비엔날레란 최고의 등용문으로 통하므로 전세계 미술계에 단색화가 차지하게 된 위상이 대단함을 확인하는 장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단색화가 어떤 계열의 화풍 이길래 세계 주요 갤러리에서 최근 3년 내 부쩍 인기를 끌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단색화 화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점을 찾자면 오랜 세월의 인고가 묻어나고 자연 친화적인 정신성을 녹여낸 반복적인 수행을 거쳐 간다는 점이다. 즉, 수도승의 면모가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한 화풍으로 묶을 수 없는 개성이 각기 다른 화가들이며 각자가 단색화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도 다르다. 어차피 어떤 미술 사조든 미술사적 편의로 이름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리라.

세계의 이목을 끈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단색화전'에 베니스의 신사처럼 흰색 수트에 모자까지 멋지게 차려 입은 노신사가 1970년 대에 일으킨 한국추상미술을 소개하러 나섰다. 바로 박서보 화백이다. 그에 따르면, 그림은 수신의 도구일 뿐이다. 폭염으로 고생하던 8월의 어느 날, 서울 성산동에 소재한 서보문화재단에서 이 세계적인 거장을 만나 진솔하고 구수한 이야기 보따리들을 듣게 되었다.

글 김솔하 | 사진 박정민 | 자료제공 서보문화재단



Ecriture No.160214 (2016년 작) 2016년 초 홍콩 갤러리 베로렝 전시 작품

올해 상반기에, 런던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개인전, 홍콩의 갤러리 삐로땡에서 개인전이 개최 되었고, 국제갤러리와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과의 협력으로 브뤼셀에서 개최된 <과정이 형태가 될 때: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특별전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이렇듯 근래에 박 화백을 비롯해서 단색화 화가들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도 대단합니다.

박 화백께서는 감회가 어떠신지요?

"5000년 역사를 지닌 우리 한민족이 자연의 일부로서 살기 원하고, 자연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연 속에 동화되고자 하거든... 그런 사상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 체계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인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부분이라고 일원화 하는데, 서양은 자연과 인간을 이원화 해서 자연을 인간의 정복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숭앙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을 폐기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정신적 중심을 상실했고 결국 수없는 사회적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연관의 회복 운동을 하자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단색화의 기본 정신이지요."

'단색화'라는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난 단색화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단색화는 색으로 규정짓는 겁니다. 영어로 모노크롬(단색)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다색주의에 대한 안티로서 나타난 현상이거든. 그런데 우리 반다색주의가 아니라, 무색이 색으로서의 폭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양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은 그림은 우리가 수신하는 도구다...수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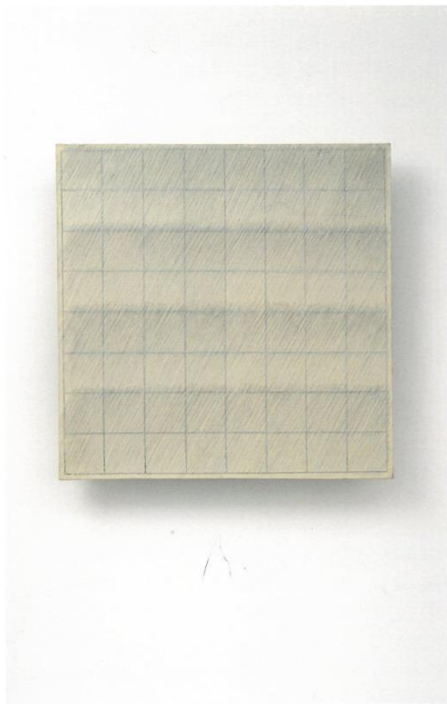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양은 아주 질 높은 기법을 동원해서 명화를 그리고 싶어하지만 우리 그게 아니에요. 나는 늘 선비처럼 살고 싶다고 자주 얘기해 왔는데 그림은 내가 수신하는 과정의 찌꺼기일 뿐 별거 아니라는거지. 전혀 생각이 다른거지. 그런데 그 용어의 출발은 2000년대에 미술 평론가 윤진성씨가 색으로서 받아들여 단색화라고 이름지은 것이 그냥 고유명사가 되어버린거죠."

그럼 달리 선호하는 용어가 있으신지요?

"없어요. 1992년에 영국 리버풀의 테이트 갤러리 리버풀에서 한국의 6인전인가 했는데 전시 제목을 색으로 물고 가길래 그러면 난처해진다, 왜냐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난 자연관의 회복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1992년 리버풀에서 한 전시의 제목은 <WORKING WITH NATURE - Traditional Thought in Contemporary Art from Korea>이 되었다.

자연친화적인 느낌 자체가 불교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80년대부터 하신 한지 작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불교, 그리고 정자, 노자 영향도 크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동양사상을 공부하게 된 계기였다. "내가 흥대 교수하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실제로 쫓겨나게 아니라 다들 작당을 하길래 사표내고 나와버렸지. 그럴 때 내가 '너는 과연 누구냐?' 계속 나에게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 사람은 위기에 부딪히면 반대로 지혜를 찾아내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코높은 서양놈도 아닌데 여태까지 서양책을 읽고 서양 현대미술이론으로 접근을 해왔거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질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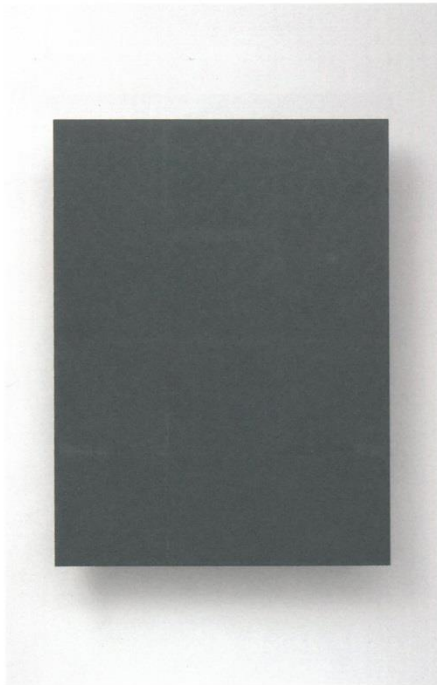


Ecriture No.6-67 (1967년작, 최초 묘법) 2016년 초 원연 화이트 큐브갤러리 전시작품

안했을 거고 난 그저 잘나가는 작가인 줄만 알았을텐데 그때 불경, 노자, 장자... 닥치는대로 동양 정신세계에 대해 읽은거야. 결국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한다'까지 깨달았지."

그럼 1967년부터 시작하신 묘법(描法) 시리즈가 그때 탄생한 건가요?  
"그렇지.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한다'까지 깨달았지만 그럼 어떻게 비울 것인가? 예술은 방법론이니까. 그때 둘째 아들이 3살이었는데 자기 형이 집에 없을 때, 형 국어노트에 글자를 써보려고 하는거야.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노트에, 칸 속에 글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 '목적성'이거든.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고무질을 하는데 종이가 구겨지고 몇 차례 찢어져 화가 나니까 예뻐하면서 마구 빗금을 그었는데 이게 바로 '체념'이고, 바로 아들을 흉내내기 시작해서 묘법이 탄생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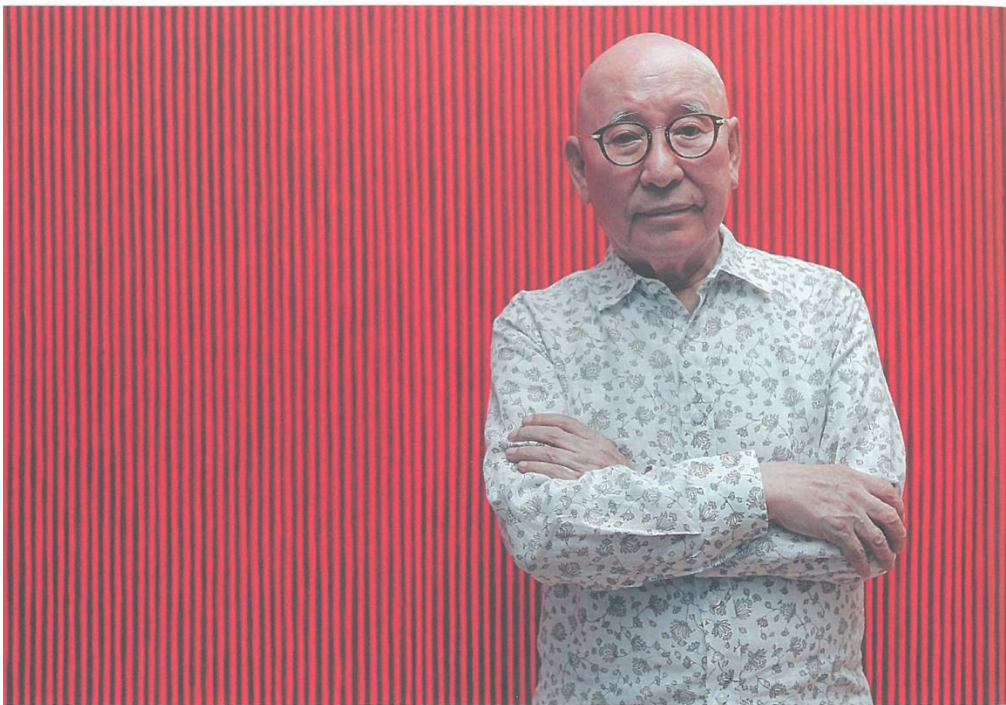
묘법 연작은 무념무상의 선을 긋는 작업인데 초기에는 연필로 긋다가 나중에 페인트날같은 도구로 무작위로 선들을 긋고 또 지우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이다. 흔히 미술관에 온 관객이 '무슨 메시지가 있나?' 궁금해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단색화가 아니라고 박 화백이 일축하였다. "수없이 지우고 긋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지금 상태가 좋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지워 버린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몰입이 되어하니까. 그런데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이걸 시세에 편승하려는 거지. 오히려 그런 건 단색화가 아닙니다. 단색화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얘기이지." '체념의 빗금'을 흉내낸 사건은 직장을 잃고 어린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되면서도 동양사상에서 살 길을 찾던 화가에게 큰 획을 긋는



Ecriture No. 890530-1(1989년 작)

에피소드였던 것이다. 아들을 흉내 낸 최초의 모법 그림은 박 화백이 절대 팔 수 없다는 조건으로 올해 초 런던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 전시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자랑스럽게 소장한 이 그림을 손에 들고, 박 화백은 이 갤러리에서 내년 1월에 또 전시 요청을 해왔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은 몇 년 간격을 두고 같은 작가의 전시를 하는데 1년도 안되어 또 제의가 왔으니 그럴 수 밖에. 지금은 성공한 대화가로서, 지나온 시절에 대해 여유로울 수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 고난의 시절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1966년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직을 사직하게 된 배경을 들으니, 학생이 스승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상상해보도 파격적인 내용이다. 홍익대 미대에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에, 학교 연구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학생들을 새벽시간까지 지도한 열정적인 교육자였던 것이다. 그는 또한 미술행정가로서의 활약도 대단하였다.

1970년대에 박서보 화백을 필두로 크게 세 가지 실험운동이 전개되었다. 첫째, 현대미술의 확산 운동(지방도시가 주체가 되어 각 지방의 예술가를 키우고 대중의 심미안 제고), 둘째, 신인 발굴 운동(미술협회가 주최한 무심사제도의 '양대판당' 공모전을 통해 학벌 및 명성 위주 심사 퇴치), 그리고 셋째, 한국 현대미술의 가치관의 집약 운동(단체전 '에필드서울' : 단색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다. 현재 국제미술세계에서 주목하는 박 화백의 이력이 바로 이러한 대단한 혁명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을 다 듣고 나니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한다'라는 박 화백의 삶의 모토가 더욱 와닿았다. 보수적인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큰 번뇌를 겪고 격정적인 삶을 살았을까. 박 화백이 최근에 알렉산드라 먼로(삼성 수석



큐레이터, 구겐하임 수석 고문)와 만나서 나는 얘기를 들려줬다. “내 그림을 보면 시대의 아픔에서부터 모든 게 그림 속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니까 배어있는거지. 내가 그 시대에 발을 파묻고 일을 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뭘 표현하려고 안 해도 배어나오는거죠 그런 시대성이.”

여기에 덧붙여 소개할 사건은 흥대 교수시절 안성에 있던 작업실에 도둑이 들어 350여점을 도둑맞은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 그 당시 박 화백의 그림은 100호에 300만원이라는 가격에도 팔리지 않아 작업실에 잔뜩 쌓여가고 있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작업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다작을 하였던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해 기본을 여쭙보니, “쓸쓸하지.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그런데 내가 묘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도둑놈이 훔쳐갔을 때, 도둑이 안목있네. 이게 나하고 인연이 없어서 손을 떠났구나라고 아픈 상처를 지워버립니다. 내 작품 외에도 물화이니, 대형 호랑이 민화를 사면서 돈이 모자라 회중시계까지 주고 사온 건데 다 훔쳐갔어. 세상에 이놈들이 면치없이 다 가져가나. 아이고. 내가 어느 놈 부조 잘 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가끔 해외 유명 경매시장에서 그때 도난당한 작품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와 대만에 수준 높은 컬렉터가 많다는데 그러한 루트로 흘러 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 내가 일약 유명해진거지. 도둑놈들이 모든 사람이 값싸게 가지게 하는 바람에.”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버리라는 핵심 가르침을 이렇게 초연하게 실천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더 그가 인간적으로 궁금해졌다.

흔히 울트라 모던한 작품은 차가움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는 매우 세련된 디자인의 현대식 건물 안에 걸어 놓아도,

전통적인 한옥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두름성이 있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느껴진다. 이는 그의 인간적 됴됨이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그는 동료들이 함께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화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도 많이 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함께 1950-60년대 앵포르멜(비정형) 추상미술 경향을 일으켰던 ‘물방울’ 작가 김창열 화백과 친하여, 김화백을 갤러리 현대에 소개하여 그의 영롱한 물방울이 곧 인기를 끌었다. 정작 박 화백은 한참 동안 잘 안팔리는 작가생활을 했었다.

2000년대에 들어 박서보 화백은 큰 고민에 빠진다. 그가 작품을 통해 ‘마음 비워내기’에 성공한 후에 어느덧 시대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고 빠르게 변모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스트레스 속에 중심을 잃고 있다는 자각 속에, 박 화백은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의 치유를 위해 자연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의 색을 치유의 도구로 쓰자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무채색을 위주로 쓰던 작가가 색채를 쓰게 된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 밑에서 쉬어 가듯이 모든 사람이 내 그림을 보면서 쉬어갈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치유의 예술을 내가 얘기하기 시작했지. 치유를 하려면 우선 내가 전부 비워줘야 하고 그렇게 비운 속에서, 색을 통해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껴야하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 어쩐지 박서보의 그림 앞에 서면, 그 무아지경의 정성이 깃든 단아한 선 하나 하나를 보다보면, 복잡한 생각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나의 고뇌를 그림이 어느덧 흡수해 버린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 제공하는 아름다리 느티나무의 그늘은 청량한 시선을 선사한다.